

“18일 예산협서 복합쇼핑몰 밀그림 그릴 것”

강 시장, 국가 주도형 형태 제안
빠른 인허가·문화적 접근 강조
“여의도 정치 지역 발전에 활용”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국민의힘과 예산협

의회에서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8일로 예고된 국민의힘과의 예산협의회에서 광주시가 생각하는 밀그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광주에서 전국 순회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은 문화적 접근으로 시

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복합쇼핑몰 업무를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쇼핑몰 유치는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의 구체적 형태를 광주시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큰 그림 제시를 선행해야 투자자들이 구체적 투자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빠른 인허가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여러 유통기업들의 광주 진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논리 또는 기업 이익의 논리로 조정될 것이다”며 “광주시에서 세개만 해라 하나만 해라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논리 기업의 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의도 정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 시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어제로

시작됐다”며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광주 이슈,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채택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 찾아와서 (내가) 영산강 지도를 보여주면서 주요 공약, 이슈를 설명했다”며 “후보들이 찾아오면 설명하고, 안 오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행정은 정치의 한 조각이다.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행정에도 유능하고 정치에도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의도 정치를 충분히 활용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군 급식 조달 수의계약 체계 유지해야”

도, 국방부에 현행 유지 요청

전남도가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 농·수협 수의계약 연차적 축소 움직임과 관련, 현행 조달 방식을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최근 국방부를 방문해 현재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군 급식조달방식을 유지해주거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지난해 말 마련한 급식개선 중

합대책에서 농수축협 간 일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되던 것을 연차적으로 수의계약 물량을 축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조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문 부지사는 “매년 계획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농수축협의 군 급식 납품 물량 축소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농·수산물의 수입산 저급·저가 식재료 증가에 따른 군 급식의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부지사는 “현행 수의계약 납품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도내 농수축산업인이 군납품 체계 개선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종합대책에 따른 군 급식 납품체계 개선안을 수정하는 건 곤란하지만, 농수축협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국내의 선선하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에 군 장병들 식탁에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11일 오후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2022년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참가자 등이 저출산 극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광주시는 인구의 날 제정 의미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1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같이 키우는 아이, 가치 커가는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응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 ▲제4기 광주 100인의 아바단 선언문 낭독 ▲저출산 극복 피켓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고, 식후 행사로 어린이 미술공연 등 문화공연도 열렸다.

양부남 전 고검장, 지역현안 해결 ‘동분서주’

이재명 의원 광주행 동행
마복동 탄약고 이전 요청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양 전 고검장은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지난 10일 광주 5·18 기념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위로 걸음’에 동행, 해묵은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양 전 고검장은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서구 주민들의 70년 숙원 사업

인 마복동 탄약고 이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화동동, 서창동, 상무2동 등의 하수도 악취 문제와 우·오수 분리관설치 문제, 서구의 중심이자 허파인 중앙공원 내 아파트 건축 관련 및 교통지옥인 매일동 지하차도 건설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전 고검장은 “평생 올곧게 걸어왔던 검사의 길과 광주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하며 단 한번도 떠난 적이 없고 잊은 적도 없는 광주에서 그 길을 걸겠다”고 말했다.
양 전 고검장은 특히 “서구를 비롯



한 광주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호남 소외 등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전 고검장은 양향자 의원(무소속)의 탈당으로 공석인 된 민주당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김용현 기자

민주당, 비위 의혹 전·현직 시의원 징계 착수

내일 윤리심판위원회 개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받는 소속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오는 13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박미정 의원과 최영환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보좌관에게 피소됐다.
최 전 의원은 사립형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시당은 의혹이 불거지자 직권 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당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

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징계 처분에는 경쟁계인 경고와 당직 자격정지,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이날 개원한 광주시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열린다

16~24일 남부대서 개최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사업으로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와 ‘제1회 광주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를 16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와 대한수영연맹이 공동 주최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수영 경기가 열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유년부부터 일반부까지 엘리트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수영선수권대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리며, 동호인이 참여하는 마스터즈수영대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대회 종목은 선수권대회는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등 4개 종목, 마스터즈대회는 경영, 다이빙 2개 종목이다.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사업으로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지난 2020년 창설했지만 코로나

19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 8일까지 선수 등 참가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선수권대회는 2,500여명, 마스터즈대회는 1,500여명 등 총 4,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상세 일정은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회 세부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수들의 경기장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2, 3층 관중석에서 대회를 즐길 수 있으며 경기장 입장료는 무료다.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해야 한다.
/김용현 기자

www.hshi.co.kr

기술로 개척하는 새로운 미래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현대삼호중공업